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29)(2/12/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3 장 큰 평화를 가져다주는 네 가지 길, 1-4 절

마 26:39 -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고전 10:24 -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마 6:10 -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 <그리스도> 아들이, 나는 이제 평화와 참된 자유로 이끌어 줄 길을 네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
2. <제자>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런 가르침을 듣는 것은 내게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3. <그리스도> 아들이, 너는 네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써라(마 26:39; 요 5:30; 6:38). 늘 많이 갖기보다는 적게 갖는 것을 택하라(고전 10:24). 늘 가장 낮은 자리를 구하고, 모든 사람 아래에 있어라(눅 14:10). 네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라(마 6:10). 보라, 그런 사람은 평화와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다.
4. <제자> 주여, 주의 이 짙막한 말씀 속에는 완전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마 5:48). 말씀은 짧은데, 의미는 심오하고, 열매는 풍성합니다. 만일 내가 이 짙막한 말씀만 충실하게 지킬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쉽사리 혼란스럽고 곤혹스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불안해하고 놀릴 때마다, 나는 내가 이 가르침에서 떠난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고, 늘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준행하여,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

**말씀과 해설:**

성경은 하나님을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한다. 렘 29:11 -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평안을 약속하셨다. 요 14:27 -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삶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그러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평안보다는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지도 모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바탕을 둔 토마스 아퀴나스의 평안에 대한 통찰과 깨달음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한다.

우리에게 평안과 함께 마음에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1)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도 생애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부 하나님께 육신적 바램을 나타내면서 내적 갈등을 경험했음을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의 겹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은 예수님의 순종 이전에, 자신의 생각을 붙잡는 모습을 먼저 담고 있다. 의사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겹세마네 기도에 대해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라고 기록함으로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신 것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육신을 가진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와 함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에서 할 수 있듯이, 예수님도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놓고 성부 하나님과 잠시나마 씨름했던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기도하시면서 마치 핏방울 같이 흘리신 예수님의 엄청난 땀은 예수님의 깊은 내면의 고통과 번민을 알게 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번민 속에서 평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라며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 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맡겼을 때에 예수님의 번민과 갈등은 사라졌고, 너무나 담담한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셨다. 그 속에는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자리하지 않았을까? 평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평안의 경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고집, 남의 의견과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과 주장만을 고수할 때, 그것은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며 서로간의 연합과 어우러짐을 막는 마음의 빗장이 될 수 있다. 우리 마음에 생긴 빗장은 우리 안에 깃들 수 있는 평안을 막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자. 평안은 바로 그 순간 스며든다.

(2) 죄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모습(창 3:8),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가 고통 중에 근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는 결코 평안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평안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라.

(3) 욕심과 집착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지 못하게 한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분가시키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욕심을 찾아 보기가 어렵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창 13:9)는 말은 욕심이 가득하고 집착하는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조카를 배려하는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과 함께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여유를 느끼게 한다. 그 여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며,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신다는 믿음의 마음이다. 그 여유와 마음 속에는 평안이 있다. 그 평안은 설사 롯이 더 좋은 땅으로 가고 자신은 좋지 않은 땅으로 가게 되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이러한 여유와 평안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때, 집착과 욕심을 버릴 수 있고 바로 그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붙잡을수록, 불필요한 애착을 가질수록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왜냐하면 강하게 붙잡을수록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 두려움이 있는 마음에 평안은 없다. 평안은 욕심과 집착의 마음을 풀어놓고 내려 놓을 때 우리에게 임한다.

(4) 불신은 평안을 앗아간다. 눅 24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던 제자들의 은신처를 찾아가셨다. 그 때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눅 24:37). 그 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눅 24:38)라고 하시며 꾸지람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극도의 두려움으로 은신처에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함으로 앞친데 덮친 격으로 더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의 이유는 그들의 불신 때문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예언하셨고, 주님은 그 예언대로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함으로 화들짝 놀랐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는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특히 갈릴리 호수에서 빈번하게 드러났다. 그 때 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다. 우리의 두려움, 걱정,

근심, 불필요한 공포는 우리의 믿음 없음, 불신앙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한다.

**(5) 삶이 어려울 때 당면한 문제만 바라보면 평안을 잃어버린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만약 문제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실현될 수 없는 약속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길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각종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을까? 평안은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위에 계시고 문제 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평안은 영적 시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를,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시 42:11 -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히 12:1-2 - 1. 이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간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의 결과는 다름아닌 주님의 평강이다. 빌 4:6-7 -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마음, 죄악, 욕심과 집착, 불신, 그리고 고난의 현실만 바라보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주님의 평안을 온전히 회복하며, 그 평안 가운데 영적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2. 코비드 19 팬데믹이 조속히 끝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소생하여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3. 우리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님들(캄보디아 김기대, 박훈용, 오만 김데이비드, 몽골 김봉춘, 터키 김홍기, 베트남 우석정, 인도네시아 이기쁨)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